



2002년
10월 15일
제 50호

춘천성시신문

나침반

교회생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1998년 9월 15일 창간 발행인 윤철중 http://www.holycc.org Fax.033)257-1260 Tel.033)256-1260 춘천시 효자2동 373-90 (☎200-091)

월드비전 교회연합성가제 개최

- 16년간 연합성가제 운영, 교회음악 성장발전 기여 -

- 이웃돕기 교회 동참 몸조성, 시민에 아름다운 모습 보여 -

한국월드비전 강원도지부와 춘천지회는 10월 19일 오후 7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초교와 교회 성가제를 연다. 금번 성가제는 제16회 춘천교회연합성가제에서 춘천종합사회복지관(서경석 관장)이 주관하고 9개 교회, 2개 기관이 동참하여 그동안 준비한 성가 실력을 모든 교회 크리스트교와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노래를 통한 기쁨과 가난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새기는 기회를 갖는다. 월드비전은 성가음악을 통하여 하나

남게 영향을 드리고 교회음악 발전과 신앙심 향상, 저소득 아동, 청소년의 학업을 위한 장학금 전달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비추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월드비전은 춘천 뿐만 아니라 수년전부터 홍천, 원주, 속초, 강릉, 삼척지역의 교회 연합성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난한 이웃돕기 사업에 지역교회들의 동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춘천지역 제16회 교회연합성가제에 동

참하는 교회는 춘천동부장로교회(임신영 목사), 남춘천장로교회(유정환 목사), 춘천은혜장로교회(지용찬 목사), 춘천석사감리교회(임택창 목사), 순복음춘천교회(김주환 목사), 춘천제일장로교회(박상호 목사), 춘천소양성결교회(이원호 목사), 춘천중앙성결교회(윤철중 목사),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성 목사) 등이며 50~100여명의 각 교회 성가대는 연합성가 '할렐루야'를 합창으로 성가제를 마무리 한다.

- 서경석지부장 인사말씀 -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동성인 결실의 계절이 성큼 우리 곁에 소리도 없이 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16회 춘천연합성가제를 춘천지역 9개 교회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을 감사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자연재해에 인제까지 경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

는 것을 잊지않고 우리의 나눔과 사랑으로 아픔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태풍이라서 그런지 사상 최대의 수재의연금 모금과 42만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

리는 사람과 나눔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값진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소리가 이번 춘천연합성가제를 통해 더 확산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



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가제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후원을 해 주신 교회와 목회자님, 성도님들과 그리고 지역의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 번 아름다운 소리에 하

한국복지재단 "1m 1원 사랑모으기"

한국복지재단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최운선 지부장)은 오는 10월 20일(주일)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제56회 춘천마라톤대회에 불우이웃을 위한 "1미터 1원 사랑모으기"를 실시한다. 마라톤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후원자가 되어 각자 달리는 거리에 따라 10km 1만원, 20km 2만원, 30km 3만원, 총구간 42.195km를 완주한 러너는 42,195원을 후원하게 된다. 마라톤 참가한 후원인들에게는 사랑을 실천한 자랑스런 복지인 기념패와 감

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행사에 일반시민과 기독교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문의: 242-0051~3 / 홈페이지: www.help-kangwon.or.kr 한국복지재단 강원지부)

춘천지역 기독교

장로연합회(회장 박승택 장로)는 지난 10월 7일(월) 오후 6시 30분 광장감리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 까지 일해 나갈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회장에 황병호 장로(제일장로교회), 부회장 임은식 장로(순복음춘천교회), 김기선 장로(성광장로교회), 박한별 장로(중앙성결교회), 이무시 장로(석사감리교회), 이성용 장로(소양성결교회), 임영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임원개선

일 장로(춘천침례교회), 한주석 장로(광장감리교회) 총무에는 이영규 장로(석사감리교회) 서기에 김관규 장로(창대감리교회) 회계 장병삼 장로(동부장로교회) 회원부장엔 김태권 장로(동부장로교회) 선교부장엔 마철규 장로(제일장로교회) 감사엔 김부희 장로(광장감리교회) 명령장로(광명장로교회)를 선출했다. 이날 속개된 회의에서 새로 시작되는 회기동

안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고문 및 지도위원 약 50여명도 위촉하기로 내정했다. 새 회기간의 주요사업으로는 ①임원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②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③순회예배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④선교역사지 탐방 ⑤선진교회 방문 ⑥기타 기독교연합회와 성서운동본부 등과의 연합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춘천기독교교직원

연합회(회장 박상운 장로)는 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직(직장인 장로예배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부 예배 후 열리는 찬양대회에

직장선교연합회 찬양대회 개최

- 10월22일 오후 7시 동부장로교회 -

(화) 오후 7시 동부장로교회 소예배실 (직장인 장로예배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부 예배 후 열리는 찬양대회에

는 직장선교연합회에 소속된 선교회, 선교회원 그 가족들이 함께 참가하게 되어 행운권 추첨과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문의 257-2003)

목회자, 장로 교회성장세미나

- 10월22일 오후 7시 동부장로교회 -

(화) 오후 7시 동부장로교회 소예배실 (직장인 장로예배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부 예배 후 열리는 찬양대회에

위한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동 세미나는 2000년 중경회장 김주환 목사 재임시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3회 실시되고 있으며 목회자와 장로의 간격을 해소시켜 하나로 연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구, 경북 성시화(聖市化) 주간 연다

- 10월 2·3주 12개 분야, 별도행사 -

- 연합예배 강사 김의환 목사 초청 -



대구경북 성시화주간 준비위원회(대회장 조준제목사)는 10월 6일부터 29일(화)까지 성시주간을 열고 12개 분야에 걸쳐 특성있는 행사를 실시하며 10월 11일(금) 오후 6시 30분 대구제일교회에서 '대구, 경북을 거룩한 도시로'라는 주제로 제3회 대구·경북 성시화 연합예배를 드린다. 이날 메시지는 초청 강사 김의환 목사(합법대학교 총장)가 헌영으로 이번 성시와 주간행사를 통해

경북성시화운동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주간행사는 ▲10월 6~7일 성시주일 및 환경운동과 거리의 기도(과교) ▲10월 7~12일 성시미션(우봉미술관) 무료법률상담(기독자변호사사무소) ▲10월 9일 영성지도자세미나(동일교회 복음센터) ▲10월 10일 기독교문화제(동일교회 복음센터) ▲10월 11일 성시화연합예배, 사랑의헌혈운동(대구제일교회) ▲10월

15일 목회자세미나(동일교회 복음센터) ▲10월 19일 젊은이찬양축제(동일교회 복음센터) ▲10월 28일 성시찬양제(성명교회 성서예배당) ▲10월 29일 목회자책제대회(시민운동장 시민체육관) 동행사는 대구, 경북 성시화운동본부와 동출리클럽 교류협의회가 주최하고 대구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대구방송, 국민일보가 후원한다. (안내전화 746-0691)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춘천교회

담임목사 김주환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595-1 / 교회사무실: TEL. (033)253-2741

기독교대한감리회

평화감리교회

담임목사 한 군

200-853 춘천시 동면 정학리 791-1(후평동 시내버스 종점 앞)
TEL. 교회사무실 241-5621 FAX. 241-5622 / 목사관 255-8525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 윤철중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88-7 / 교회사무실: TEL. (033)256-3537
교회 홈페이지 http://www.chjell.org/



삼양건설

○Renovation ○Remodeling
○Renewal ○Reform ○Interior

대표 이승주 권사
(춘천중앙감리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685-13

TEL. (033)251-4001 FAX. (033)251-0252 H.P. 017-250-253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춘천제일교회

담임목사 박상철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79-1 / 교회사무실: TEL. (033)262-6881

대한예수교장로회

늘사랑교회

담임목사 정재호

춘천시 후평2동 67-11번지 / 교회사무실 TEL. 252-8219
늘사랑교회 홈페이지 http://www.everloving.or.kr/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암교회

담임목사 최상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1리 1174번지 / 교회사무실 TEL. 261-7727
사암중앙교회 홈페이지 http://www.saam21.org/

사설

감사의 달에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다

매년 11월이면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로 바쁘다. 한해 동안 추구한 오곡을 예배당 강단 가장자리로 진열하고 첫 수확을 창조주께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 드린다. 소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으로 그의 것이라 전제하고 내게 주신 것을 그분께 드린다는 뜻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거짓과 위선이 혼합되지 않은 정직함과 믿음의 순수성이 절대적이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선호하는 신에게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게 감사할 받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데 인타가 있다. 많은 국민들이 추석 설 조상의 묘소를 찾아 절하고 오곡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고인이 받은 인발은 상관하지 않고 다만 자식된 도리를 했다는 데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남북분단으로 돌아오지 않는 부모형제를 죽은

것으로 가장하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라는 방법으로 위로하고 모시는 것은 인간들만의 것을 인간가족 면회에서 알 수 있었다. 우리 주위에는 미신을 찾아 감사하는 우매한 국민들이 많다. 교회는 물론 농촌을 비롯한 일부 직장신교회는 추수감사예배를 드림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연례행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밖에 모른다. 형식과 외형이 아무리 화려해도 진심 즉,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서는 감사배가 아닐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회개와 거짓이 없는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 교회는 예산확보의 방법으로 보다 풍요한 감사를 강조하고 개인은 자기 체면이나 과시를 목적으로 드린다면 외형이 아무리 풍부할지라도 미신우상에게 드리는 제물 감사가 될 수 있다.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두들겨 보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전 추수감사예배를 드리기를 바란다.

고난당한 주민주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가장 강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인명, 재산, 도로, 논밭이 폐허가 되고 하소연 할 길 없는 수많은 국민은 좌절하고 있다. 그러나 고물을 팔아 나누고자 하는 온정의 손길은 9월말까지 1,300억원의 성금을 모았다고 한다. 우리는 루사의 고통을 함께 맞은 것을 베풀 수 있었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 아니라 하는 것과 불행 중에도 감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 주만 좋아하고 베풀어준 삶이라는 어린아이가 같은 마음을 알았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욕지거리는 "그를 원망한다." 어찌면 태풍으로 고난을 당한 국민들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오곡이 열결은 이 가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인가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 잃어버린 것들은 가는 세월과 함께 다시 모을 수도 있다. 창조주에 대한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은 언제 회복될 것인지가 중보해진다. 예수님은 피레 당사자와

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가지는 깨달음 보다는 그분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린 모든 것에 앞서 믿음을 회복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 대 많은 교회들이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성금과 노력, 기도로 간구하고 있으며 매우 목요일 저녁 춘천성서회기도모임은 수제민들의 고물해소와 강한 믿음을, 재난없는 삶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다. 사실 우리들은 평등제일주의적 사고로 살아왔다. 금전 경험들 통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 물질은 태풍에도 쉽게 날라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하다. 모든 교회는 불평화 시되는 부분의 예산을 줄이거나 과감히 삭제하고 공동당하는 이웃들에게 배정하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복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데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선교회소식 · 교계단신

●**춘천신우회 정오예배** 춘천신우회(김창희 회장, 홍천읍장)에서는 지난 9월 26일 12시 홍천읍 결운리 식도원가에서 성민교회 이종희목사님을 초청하여 정오 기도회를 가졌고 추석명절 이웃돕기 대한 사업보고와 미자교회 지원과 영동 지역 수제민을 위한 기금을 당부했다.

●**춘천신양장로교회(김광국 담임목사)**는 10월부터 수요기도회 예배시간을 저녁 7시 30분으로 변경하고 10월 20일(주일) 성전건축감사 감사 음악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춘천신양장로교회(윤승룡 담임목사)**는 제3차 특별기도회를 10월 7일(월)부터 11월 6일(수)까지 "기적을 일으키는 새벽 기도"라는 주제로 대예배실에서 실시한다. 10월 19일 열린 월드비전 주회 연합성가제에 시온, 호산나, 생명수 찬양단이 참여했다.

●**춘천인민교회(양영환 담임목사, 춘천 서지명목사)**는 지난 10월 13일 홍천군 서석면 체육공원 잔디구장에서 제2회 전교인 체육대회를 열었다. 200여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축구, 피구, 투호, 줄다리기, 공물리기 등 14개 종목의 다양한 경기를 가졌으며 폐회 예배 후 자전지, 가스렌지 등 다양한 상품권 추첨이 있었다.

Manna

자기피우고 종 출하기

아드리아에 사는 부족들 간에 싸움이 잦은 시절, 치파이(Chh-Pain)라는 판서(Fan-Shm)를 정복했을 때의 일이다. 그러한 전쟁의 혼란한 틈을 타 누군가가 판서족의 마을에서 종 하나를 훔쳐 어깨에 메고 가고 있었다. 그때 "당그"하고 종소리가 나자 그 도둑은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두려워 즉시 손으로 자기 귀를 막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한 도둑은 사람들이 역시 종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세상은 나쁜 행동을 하거나 죄를 지을수록 그 댓가로 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자신들의 행위를 숨기기 위해 온갖 수단과 도구를 쓰는 바보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숨겨진 마음이 바로: 종을 훔치면서 자기 귀를 막았던 저 도둑과 똑같은 것이다. 비록 자기의 귀를 막고 양심의 찰을 꼭꼭 감추려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소리까지 모두 다 듣고 계시는 것을...

(Encyclopedia of Illustration/sammoolbible)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사 64:8)

변석규 목사 (춘천신원장교회)

회한 웃음 입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손짓하며 유혹하는 단풍의 계절 가을이다. 토기장이가 자신의 의도대로 만든 질그릇들을 바라보며 “좋았다”라고 감탄하던 창조의 감동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계절이라 더욱 좋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작품들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들로 산으로 나가지만 토기장이의 손에는 망치로 두들겨 맞거나 한 두 개 짝이 되어 돌아온다. 완가 감사를 잘못된 느낌이다. 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작품을 만든 주인의 사상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토기장이의 작품을 바라보는 질그릇들의 마음이 강박해서일까? 소유하려고 파괴하려 든다. 스스로 주인이나 된 듯 토기장을 이룰 바라는 듯 하다. 피조물들의 반란이 거세지고 있다. 피조물들이 작품들을 보고 서로 감격하지만 그 작품을 만든 토기장이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시대의 비극이 아닐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는 감격을 이 땅에 다시 회복해야 할 때이다. 이시야 64:8의 말씀은 바로 피조물 “진흙”과 창조주 “토기장”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원하는 기도 즉, 의로운 남자들의 간절한 고백의 기도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주의 길에서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뿔이 일사”(사 64:6) 같다고 이시야 선지자는 고백하였다. 가을의 단풍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쓸쓸하게 낙엽이 되어 지나가는 자의 발에 짓 밟히게 되는 것처럼, 토기장이의 손을 떠난 진흙은 쇠뿔이 일사기에 불과하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사 64:9) 토기장이의 금공과 은혜의 단비가 내려 그의 진흙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때, 그의 진흙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고 “시절을 좇아 과실은 맺으며 그 일사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존재로 변화되리라. “시온 너는 종으냐? 낙엽 밟는 소리!” “가까이 오라, 우리도 연변가는 낙엽이니.” 구름의 시를 기억하며 자연의 뜻을 만나는 것도 유익하겠으나, 아름다운 자연을 손으로 밟으시는 토기장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리는 계절이 되도록 하자.

여리고성 정복이 주는 교훈

이영구 장로
서석교회
춘천직장신교연합회 총회장

『(성경통역) 여호수아 6장 8~27절』
요절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나팔소리를 듣는 동시에 소리가 높아질 때에 여리고의 도성은 무너졌다. 최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소리입니다. 이렇기에 말입니다. “아담아 배가 어디 있느냐?” “...에 마 먹었느냐?”

1. 소리의 위력을 배움시다
창조물은 “여리고성(城)”이 무너진 것은 소리에 있습니다. 본문 요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렁찬 함성과 외침에 의해 여리고의 장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함성 소리가 커져서 되며 있었습니다. 소리는 심판의 능력이 있습니다. 방한다고 소리를 지르면 연변가

는 망하게 됩니다. 싸움이 있고 멸망이 있는 곳에는 항상 큰소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로가 있는 곳에는 작은 음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는 땅을 진동시킬 만큼 우렁찬 성벽이 흔들릴 정도로 위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진리의 합성이었습니다. 진리의 합성이 있을 때 불의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의로운 의침이 있을 때 거짓의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진리의 소리가 높아질 때에 죄악의 도성은 무너집니다. 최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소리입니다. 이렇기에 말입니다. “아담아 배가 어디 있느냐?” “...에 마 먹었느냐?”

2. 참된 안식의 의미를 배움시다
여리고성(城)이 무너진 것은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본문 6장 4절).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일도 할 수 없었고 멀리까지 갈 것이 없는 것도 금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안식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날은 창조의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세종난 수고한 것이 제 칠일째에

취되었습니다. 성(城)은 무너졌고 그 땅은 완전한 정복되었습니다. 정복했다는 것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참된 안식은 죄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는 것이 해방이요 곧 안식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은 죄악을 정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3. 첫 열매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여리고성(城)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곳에서 아무것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바칠 물건만 취해야 했습니다(본문 6장 18~19절). 하나님께 바칠 것 외에는 모두 불태워야 했고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성(城)에는 귀중한 물건과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가운 것들을 모두 불태워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취해도 배가 지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 탐심을 버리기 위해였습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은 사탄에게 빠짐과 같습니다(골 3:5). 탐심은 곧 우

상심배라 하고 했습니다. 2) 그것은 죄악의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城) 안에 있는 물건들은 우상을 위해 쓰여졌던 것들이거나 또는 쾌락과 사치, 쾌락을 위해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그것을 취하는 것은 죄악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중중했다면 그것들도 중중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영원히 중해야 합니다. 3)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城)은 “가나안” 땅의 여러 성 중에서 첫 성이요, 가장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얻는 것은 곧 가나안 전체를 얻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것은 사람들의 노력이나 방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여리고성(城)의 첫 열매로 가져온 것은 밭을 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급하고 어렵고 해도 하나님께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들의 것이 예뻐져 있습니다. 주님은 첫 열매를 받으시렵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 것이 언덕기에 다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춘천 기독교 직장인 정오예배 안내

일시: 10월 29일(화) 12:00(예배)~12:35(식사) 장소: 동부장로교회
참교: 이석은 목사 사회&안내: 한국통신선교회
기도&특송: 강원도청철정선교회
일시: 11월 26일(화) 12:00(예배)~12:35(식사) 장소: 동부장로교회
참교: 장규남 목사 사회&안내: 춘천시방병원선교회
기도&특송: 홀드아동복지선교회
춘천직장신교연합 정오예배위원장 진상영 H.019-387-7110
(연합회비서) 우체국 202267-02-050582 (예금주:홍달성)

(9월) 성시화를 위해 후원하신 분들

《개업》강성주 김철수 김기태 김영명 김현철 민병철 박동훈 박상운 상기은 안미애 안정숙 엄필남 오홍수 유근광 이순호 이병연 이준택 이학규 임은경 양순옥 한순수 한희원 한순영 홍성운 홍순국 황병환 장기영 정찬복 조남진 조종환 최정용 최상호 최희창
《교회》춘천춘천교회(김주환목사) / 춘천사자교회(임택창목사) / 춘천중앙성결교회(윤철홍목사) / 하나교회(김길홍목사) / 춘천열린교회(신성복목사) / 춘천소양성결교회(이원호목사) / 춘천시암성결교회(최상도목사) / 춘천일신장로교회(이은주목사) / 춘천신사명장로교회(정재호목사)
《단회》춘천직장신교연합회(박성운 대표회장) 이윤규(영광한의원) 조은제/기정희(메트로병원선교회) 이만호/윤영순(일로에이임)
《후원회》
농협 203-02-280238 (예금주: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예금주:조남진)
조종은 716-01-001389 (예금주:조남진)
조종은 711-04-123620 (예금주:조종은)

▲가족지킴이센터기전개는 일

강원대학교 기독교직장선교회



조 정 일 장로
강원대학교 선교회장

장, 김용환 장로(서부감리교회)가 총무를 맡아서 설립초기의 기반을 닦았다. 처음에는 월 1회, 91년도 부터는

월 2회 외부의 목사님을 모시고 학내에서 중식시간을 이용해 예배를 드린다. 97년도부터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 형식은 매주 목요일 중식시간에 모여 먼저 찬양을 2-3장 드리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기도를 드린 후 성경공부 교재로 말씀을 배우고 집합을 나눈다. 대학이라 모이는 장소는 비교적 자유롭고 모이는 인원도 10여명 정도이며, 말씀 인도는 회원이 담당한다. 이웃을 섬기는 일로서는 춘천지리산 나눔의 동산과 거두리의 봄내호스피스를 위하여 매주 목요 예배에서 기도하고 매월 정기 후원을 하고 있

으며,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곳의 형편도 보고 함께 지내기도 한다. 회원 친목을 위하여는 년 2회 회원 가족과 함께 산행을 한 후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직장의 홈페이지에 신우의 만을 마련하여 회원들이 은혜로운 글을 올리거나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직장선교회 김용일 장로님이 보내는 "오늘의 말씀" 매일을 학내의 30여명의 기독교직원이 일과 보도록 하였는데 처음에는 잘 안 읽던 교직원도 점차 매일 읽고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내의 모든 기독교인(교수 직원 학생)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학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1년에 한번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시작 된, "문학과 장년의 밤"이라는 전도 집회가 올해로 8회째 열렸다. 올해는 김진홍 목사님을 모시고 춘천 시내의 모든 기독교학생과 기독교인 등 약 1,800여명을 초청하여 은혜중에 마쳤다. 강원대학교 기독교직장선교회는 강원대 캠퍼스가 복음화되는 일과 직장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권자가 되어 사는 것을 소망으로 하고 있으며, 강원도내 전체 기독교직원이 연합하여 직장선교의 불을 켜는 선교대회 매년 1회 개최하는 비전을 품고 있다.

춘천우체국 직장선교회 창립12주년 감사예배

춘천우체국직장선교회(회장 채승수 안수집사)는 9월 26일 창립 12주년을 맞이하여 직장내 선교회원들이 산 돌교회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직장선교회 지도목사인 조충환 목사를 초청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 예배 후에는 회원들에게 기념품을 배부하며 공동식사를 통하여 사랑의 교제를 가졌다. 우체국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과거에 "편지나 소포를 부치는 곳"으로 인식되었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종류의 예금과 보편, 우체국대우 업무부 비롯하여 제세공과금 납부, 송금업무는 물론, 송차권이나 복권구입, 꽃배달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심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의 민원종합 창구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정보화 선도하는 정보통신국의 최일선기관으로서 우체국내 정보교육센터를 상설하여 부녀자, 노인, 학생 등 지역주민 모두가 컴퓨터를 잘 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정보교육을 연중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외복지시설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PC를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터 가운데 하나에서 "춘천우체국직장선교회"를 세우셨다. 지금은 정년퇴직하신 최철원 장로(중앙성교회), 김

용환 장로(춘천성교회)를 비롯하여 몇몇 직장선교회에 대한 열정과 꿈이 있었지만 민음의 선배님들이 "춘천우체국직장선교회"를 조직하고 9월 21일 우체국대 업무상황실에서 첫 창립 예배를 드린 이후 현재에 이른다. 우체국직장선교회 초대회장으로 임하셨던 박성진 장로(소양성교회)는 현재 춘천직장선교회연합회장으로 직장선교의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우체국선교회를 기차 가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20여명의 회원들이 매월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며 해외 선교비 지원, 건식아동 및 독거노인 돕기 등 섬김과 나눔의 삶을 직장내에서 실천하여 오고 있다. 또한 금년에는 창립 12주년을 기념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직장 선교의 보" (소식지)를 만들어 전도용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춘천우체국직장선교회 채승수 안수집사(춘천중앙성교회)는 직장선교의 사명에 대하여 "보편적 21세기 선교를 지향하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생활은 개인중심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터, 사업장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화된 신앙으로, 성숙시켜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춘천을 성숙화시키는 것"이라며 우체국직장선교회가 이 일에 일조할 것을 다짐했다.

찬양곡집 "샘물의 노래" 출간



김춘목 목사

은 찬양집 "샘물의 노래" (도서출판 고려)를 출간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이침기도'를 비롯, 어린이의 천진한 웃음을 소재로 한 '하하하' 등의 좋은 노래들은 물론

명의 발달로 신앙 정서가 메말라가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신앙적인 마음이 담겨있다. 김 목사는 춘천교와 중앙대 음악과를 졸업하고 서울신학대학을 나온 후 속초제일성교회, 횡성감리교회, 춘천광성성교회에서 목회하였고 철원중학교, 속초여중, 강원중고에서 교편을 잡은 바 있으며 현재 일본선교훈련원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경서간복음해설집, 하늘나라의 만나 (1972년), 교회학교 동요 및 성가 창작곡집 샘물의 노래 (2002년)

2002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안내책자 설명 및 배부 -

예수전도단 춘천지부는 약 13의 무슬림들의 라마단 기간인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전개한다. 지난해에는 한국에서만 5만여명이 2천3백여건의 책자를 통해 참여했으며 금년에는 전세계 35개국, 2천만명 가량의 크리스천이 무슬림을 위한 30일기도에 참여할 예정이다. 라마단이란, 이슬람력으로 9월 한달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으로 해를 매부터 해질녘까지 음식과 식수를 먹지 않고 절제된 생활을 하며 하루 3-5번 시복을 향해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씻겨나가고 형제애가 돈독해진다고 믿는다. 현재 활동중인 기독교 사역자들이 무슬림 150만명에 한민족으로 이슬람 지역에는 복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사실을 보면 지금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안내책자"는 이슬람교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통계, 선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증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책자의 안내를 따라 일과에 따라 학교, 직장선교회, 중보기도회, 사업장, 가정, 개인 등 한가이상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한다.

★안내책자 신청: ☎ 033)252-1128
이화철 간사 예수전도단
(연락처시문 입금방법 및 우송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교회나 단체 등에서 안내책자를 신청하신 경우, 예수전도단 간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도운동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현장에서 책자를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도 안내책자 가격: 권당 2천원)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도모임 설교자 명단

날짜	설교 & 간증	날짜	설교 & 간증
9/5	조충환 목사(춘천성시본부)	9/12	변석규 목사(신림성교회)
9/26	정경호 목사(춘천CCC성교회)	10/10	소영생 목사(만리동성교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회의실

순복음교회 협동목사로 취임한 조은제 목사



조은제 목사

조은제 장로의 목사 안수를 확인하고 협동목사로 추대하였다. 또한 본 교회는 조은제 협동목사에게 춘천성시화와 해외선교의 사역을 맡겼다. 조목사

는 지난 수년간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해왔으며 베드로성교회에 신학원을 개설하고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질향상을 위해 현지학교 교육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조목사는 지난 6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측 총회 산하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한편 조남진 장로는 한국 월드비전 부회장직을 마치고 10월 10일 춘천으로 이주했으며 앞으로 노인복지와 성시화운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사랑과 정성의 추수감사절이 됩시다****

홍천군정 발전을 위한 조찬기도회

홍천군 교회협의회(회장 홍천기장교회 추임목사)에서는 지난 9월 19일 오후 7시 홍천교회에서 홍천군정 발전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드린다. 이날 유재국 국회의원, 노승철 홍천군수, 박주선 도의원, 허필용 홍천군의원 등 관내 기관장과 홍천군 교회협의회·홍천군 교회연합회교역자, 홍천군 신우회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조찬기도회는 홍천군 교회협의회 총무 정병두목사(동부교회)의 사회로 김기환목사(홍천성교회)의 중보기도, 이만수목사(홍천중앙성교회)의 성경봉독으로 시작되며, 초청강사 원주영장교회 서재원 목사의 "기독교인의 긍정적인 삶과 한국의 소망 예수"란 제목의 말씀이 있다. 만민감리교회 양명환 목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홍천교회에서 허태범 목사의 "홍천군정 발전을 위한 기도", 홍천제일교회의 조기산 목사의 "홍천지역 복음화를 위한 기도"와 유재국 국회의원의 축사와 노승철 홍천군수의 인사말씀에 이어 홍천군 교회협의회장 추임목사(홍천기장교회)목사의 감사말씀, 홍천군 연합회장 김진환(신내교회)목사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친다. 함께 참석한 관내 교역자, 신우회원, 기 "다 세장 모두는 연합 조찬 기도회"란 느낀 것에 대해 감사드렸고 장기적인 기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믿는 짝" 찾으시는 일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앙
상담사 재 선(춘천성시본부)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일터
CYM 코리아(주)
기독교가정상담연구소장보호사

"믿는 가정에 믿는 짝"
강원영사상담소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내)

초빙합니다.

믿음이 신실하며 상담에 은사와 소명이 있는 성도님

- 상담간부 0명
- 커플매니저 00명

033)242-2121(代)
0303-4875-6851

당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뢰를 확인하세요.
www.cymkoreo.com/E-mail:cym2002kr@hanmail